
한국지엠 창원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건의

2018. 3. 15

• 건의처 : 경상남도, 산업통상자원부



창원상공회의소

한국지엠 창원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건의

■ 현황 및 문제점

-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GMC(General Motors Corporation : 제너럴모터스)의 경차 생산기지로 연간 21만 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경남 유일의 완성품 자동차 생산사업장임.

한국GM 창원공장 현황(2017년)

항 목	내 용
종업원 수	2400여 명(정규직 1700여 명, 비정규직 700여 명)
사업장 규모	727,726m ²
주요 생산차종	스파크, 라보, 다마스
생산능력	연간 21만 대
가동률	70% 내외
협력업체	창원 소재 180여 개(추정)
국내 한국지엠 공장 및 차종 내역	부평공장(인천) : 아베오, 캡티바, 알페온, 말리부, 트렉스 보령공장(충남) : 변속기, 엔진부품 군산공장(전북) : 올란도, 크루즈, 디젤엔진 (폐쇄 결정)

-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2016년 기준 매출액은 2조 6천억 원으로 창원 자동차 제조업(부품포함) 전체 출하액의 28.4%를 차지했음. 수출액은 8억 8천만 불로 동 산업의 27.9%를, 종업원 수는 16.5%를 점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함. 전체 제조업 출하액에 4.9%, 수출액 4.8%, 종업원 수 2.3%를 차지했음.(창원시, 경남 GRDP의 34~5% 차지)
- 이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단일 비중임. 완성품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약 2만 5천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,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가진 지역 내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음.
- 이미 한국지엠의 1차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2월 대비 가동률이 50~70%, 매출액은 20~30%로 급감한 상황임.(한국자동차협동조합) 이에 따른 시중은행과의 거래도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도 발생하고 있음.

한국GM 창원공장 경남 및 창원 내 산업 비중(2016년 기준)

	출하액(매출액)	수출액	업체 수 / 종업원 수
한국GM 창원공장	2조 6천억 원	8억 8천만 불	1개 / 3,074명
창원 자동차 제조업 (부품포함)	9조 2천억 원 (약 28.4%)	29억 8천만 불 (27.9%)	684개 / 18,631명 (16.5%)
창원 전체 제조업	53조 4천억 원 (약 4.9%)	182억 7천만 불 (4.8%)	9,956개 / 131,460명 (2.3%)

※ ()는 해당 항목의 한국GM 창원공장 비중

※ 출하액은 매출액에서 구입상품과 공장 내부 간 거래금액을 뺀 나머жим.
본 표에서는 비교의 편의상 매출액과 출하액을 같은 개념으로 표기하였음.

※ 종업원 수는 2016년 기준이며, 그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는 2,400여 명 수준임.

- 지난 2월 13일 GMC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함에 따라 한국지엠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경상남도와 인천시의 산업계 및 지역사회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음.
- 이러한 가운데 최근 GMC는 국내에 신차 2종(창원공장 CUV차량 배정)을 배정, 28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의향을 밝히며, 한국지엠 공장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.

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조건과 혜택

조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조업 3,000만 달러 투자 · 연구·개발에 200만 달러 이상, 연구원 10인 이상 투자 등
혜 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초 5년 간 법인세 등 100% 감면 · 5년 후 2년 간 50% 감면 가능 ·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최대 15년 간 일정 부분 감면 가능 · 국유지 대여 시 임차료 인하

※ 자료 : 경상남도

■ 건 의

- ▲한국지엠 창원공장과 1·2차 협력업체가 지역 산업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, ▲글로벌 기업과의 부품조달로 해외수출길을 열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가치(품질보증의 문제), ▲한국지엠 철수에 따라 대량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문제, ▲위기감 고조로 유동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협력업체 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.
- 현재 지역산업과 지역사회의 상황을 고려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람.

2018년 3월 15일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